

7·8



우리네

발행일 : 2006. 08. 01

총권 20호 2006 July/August Vol-20

발행인 : 박경영 | 발행처 : 우리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96-82 | TEL : 02)3412-1281~2 FAX : 02)3412-1283

www.uriseed.com

원근배우양



종자전쟁과 우리나라의 현실

세계는 지금 종자(種子)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세계 각국은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 오래전에 돌입했다. 우리 농민들이 외국산 종자를 사용한 대가로 물에는 지불해야하는 로열티가 무려 1천억원 대에 이른다. 개방화시대 농촌의 생존이 한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농업은 한때 질보다 양이 우선되는 사회 분위기를 좇는 바람에 토종 종자를 스스로 물어내고 관습에서 미쳐있었지만 세계는 이미 1968년에 신종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 10년째 되는 2012년에는 UPOV에 등록된 모든 작물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고 한다. 올해 새로 품종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말기의 경우 국내 재배량의 약 87%가 '외국' '잡곡' 등 일반 품종에서 차지 60억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몇년전 개발된 국산 품종인 '배향 말기'의 보급률이 아직 8%에 불과한 탓이다. 국내에서 자체 품종개발이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로열티 지급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를 견디지 못해 많은 농산물의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외국 농산물의 일방적인 한국 진출을 보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불리한 우리나라의 현실상에서 우리도 작과 확보할 수 있는 '종자전쟁'의 무기는 우리의 우수한 종자와 집약한 품종 개발이다. 식물신종종보호 제도는 신종종 육종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육상자의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일종의 특허제라고 할 수 있다. 육상자가 하여금 타인의 육상자의 허락없이 신종종의 상업화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개발에 참여한 농가의 생계가 보호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활발한 신종종 개발은 오히려 우리나라 농가들이 보호받고 또한 우수 품종 재배 기회가 늘어나는 길이다.

예를 들어 삼육산과대행이(Ur2000-001)를 비롯한 우리꽃의 여러 패랭이 신종종들은 5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기술 및 노동력이 소요되었지만 법적인 보호 아래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눈썹은 짙은색의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비싼 품종 중 하나로 매출규모로 웬만한 야생화 생산농가의 년 매출과 맞먹고 있으며 상



• 타래꽃물 한화

현재 개발되고 있는 패랭이 품종들



• 사진설명 : 상단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un01, un02, un03, un06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낮은 값이 있지만 농촌진흥청은 각 산하기관을 통해 농작물의 유전자원 연구, 유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국내 식물 유전자원의 수집 확보, 유용한 유전자원의 국가적 관리체계 확립 등 농업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품종 개발과 토종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농업생물공학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정부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농민, 원예인, 조경인들이 연설 종요지를 인식하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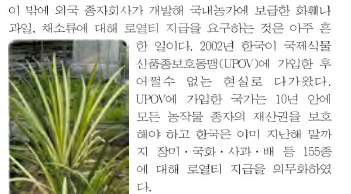
Contents

- ◆ 원정리포트 2면
- ◆ 대표작 조경식물군 3면
- ◆ 수중,수면식물의 올리브 이헤 4면
- ◆ Small Garden Project 5면
- ◆ 종자보호제도 6면
- ◆ 원정리포트 7,8,9면
- ◆ 일의식지 추천목록 10면
- ◆ 특집 11면
- ◆ 한국의 식물원 13면
- ◆ 취미로 기르는 야생화 14면
- ◆ 지상중계 이천연구소 15면
- ◆ 부식물원 16면



• 눈썹은 패랭이 • 수근코스모스 우리꽃 • 향글루노비페미리

(UPOV)을 발족하였다.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개발도상국 각국의 유전자원에 뛰어들어 종자의 주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소리없는 종자전쟁 한가운데에서 우리나라 또한 외국으로 그 종자가 빠져나가기 육종한 식물의 유전자원이 적지 않다. 이렇게 빠져나간 종자는 외국에서 새품종으로 개발돼 우리나라 다시 역수입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산 정향나무를 원종으로 한 '비스김라일락'과 네덜란드에서 다양하게 품종 개량되어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백합의 원종도 불리는 날개하늘나리의 역수입 사례가 알려져서 많은 이들이 울분을 토해내지만 현실적으로 달린 것은 없다.



• 줄무늬나팔꽃원본

2009년까지 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현장 리포트

뛰어난 자연경관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향기

“베어크리크C.C.”



여 조성하였다.

먼저 클럽하우스의 앞쪽은 골프장 이용객들의 주동선 앞에 위치한다. 그린만큼 화려함과 동시에 꽃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개암후박스, 스텔라원주리를 비롯해 숙근조식물, 에키나, 라이프리스 등 다양한 수종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여 계속해서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주동선 옆인 만큼 그린키커를 이용해 마감처리하여 시공작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화랑함이 없도록 하였다. 추가로 가을에 플립으로 라인을 주거나 일리움 기간티움, 프리틸라리아를 이용한 추식군 식재도 이들에 보완한다.

클럽하우스 뒤면은 클럽하우스 출발과 끝나는 곳으로 역시 사람들의 출입이 잦고 좌측은 건물의 그림자와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로 음치하고 있고 우측은 개암후박스 군식지가 있는 곳이다. 우선 음치는 다양한 호스타 종류를 이용해 처리하였고 좌측으로 키가 큰 식물이 아스타종류와 분홍구절초, 에키나, 개암후박스, 돌골 화이트팬티등으로 여름, 가을 볼거리를 만들었다. 도로와 접한 앞쪽으로는 삼색조팝, 황금조팝, 푸른일목장, 레인보우아주라, 무늬복부쟁이 등 무늬가 좋은 꽃을 심어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분위기를 깨고 있다.



베어크리크C.C.는 최근에 2003년에 오픈한 골프장으로 전체 36홀의 코스는 넓고 편안한 베어크스와 올미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삼각지대가 주로 찾는 크리크코스나 나누어지는데 주변 운악산의 경치와 잘 어울려 자연미가 물씬 넘치는 골프장이다. '우리꽃'에서 사랑하는 현장의 특징은 다양한 품종과 그 식물 개개의 성격과 특성을 적절하게 이용에 있다. 이번 베어크리크 C.C.현장은 혼합식재, 라가든, 수변식재, 우리법면4호 씨트스프레이 등 현장의 성격에 맞게 선정하였다.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무늬종시리즈 - ⑭



• 황금무늬빈카

빈카(Vinc minor)는 덩굴성 상록 소관목으로 줄사철, 송악 등과 더불어 음지의 지피식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다. 원산지는 남유럽, 북아프리카이며 포복성으로 줄기가 매우 가늘며 1m정도까지 자란다. 줄사철, 아이비, 송악 등 음지의 소관목형 포복성식물로 쓰이는 소재들이 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빈카는 아름다운 보라색꽃이 5-7월경에 줄기사이에서 피는 것이 - 흰색꽃(Vinc minor 'Gentle pink')을 피우는 품종도 있다. - 큰 장점이 있다. 생육은 조금 까다로워 고온이나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면 생육이 불량해지므로 그늘의 품종이 잘되는 곳에서 식재하여야 한다.

현재는 조경용으로 일반 빈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색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는 빈카 무늬종 품종이 다양하게 있다. 일안쪽에 황금색이 들어간 빈카 황금무늬빈카(Vinc minor 'Yellow'), 일 테두리가 노란색 무늬 또는 흰색 줄무늬가 있는 무늬빈카 (Vinc minor 'Variegata')가 있다. 대부분 일반 빈카와 특성은 비슷하고 도로변의 나무이대,

요과 꽃이 모두 좋은

“무늬종 빈카”

아파트, 공원 등의 그늘이나 나무 아래 식재하면 좋고 일 반종과 무늬종을 번갈아 혼식해서 심어도 좋다. 특히 황금무늬빈카는 황금색이 강하여 같이 혼식하면 대비가 되어 좋은 지피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늘지고 습기는 놓치면 매수가 잘되는 곳에서 잘 자라고 약간 습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주로 삼목을 하여 번식을 하게되는데 통풍이 잘되고 서늘하게 해주어야 뿌리를 잘 내린다. 특히 여름에는 삼목이 잘 안되므로 봄에 육묘상자 또는 포트에 직접 심고 이때 차광망을 해주면 더욱 좋다.



지피조경소재로 빈카의 이용이 차츰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일과 꽃이 모두 좋은 무늬종 빈카도 활발하게 적용될 것 기대해본다.

들을 샘플링형식으로 조성하였는데, 도로 가운데 위치한 만큼 키가 크지 않은 상록잔디캐랭이와 세암류 등을 이용하여 아기가기함 느낌을 살렸는데 어느정도 여유지면 서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변식재는 펀드의 계류 주변으로 나누어지는 펀드 주



변으로는 개암수련과 무늬큰고랭이, 노랑꽃조팝, 제비꽃 등 수변 및 수중에서도 생육이 좋은 품종들을 사용하였다. 특히 형태가 이쁘고 집값이 좋은 무늬큰고랭이는 티 엘이나 도로 옆으로 식재하며 포인트식물로 사용하였다. 계류주변은 꽃창포 계류로 굴곡이 지는 곳에 군식해 물과 바위와 잘 어울리게 하였다.

아직 개장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골프장이지만 '우리꽃'이 직접 공사한 곳 이외에도 다양한 품종들과 펀드내의 갈대의 군락지를 습지 원 형식으로 조성할것이라던지 암석을 이용해 만든 폭포 또 그 옆에지는 물사이의 줄(화분과 식물)을 이용한 마루리 등 베어크리크는 숙근초를 이용한 조경에 이미 완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일과 꽃이 모두 좋은 황금색상 황금매조향



• 황금매조향

황금매의 새로운 허브식물

• 생육이 건강하고 향기가 매우 좋다.
• 황금매의 일차재만으로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 허브질 조성시 적합한 소재

구입문의 : ☎ 우리꽃 02) 3412-1281

대표적 조경식물군(Genus) 으로 본 분류학적 의미와 품종의 이해 ⑧

Chrysanthemum속

Chrysanthemum 속에는 20종 정도의 속으로 시가나 1000여종의 아종은 2000종 초 유한 숙근초가 있다. 연꽃들은 지중해 지역에서 유래했으며 건조지 등에서 자란다. 숙근초들은 러시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유래하며 다양한 그늘로 분포한다. 대머리는 우리아생초를 중심으로 잘 이용되고 있는 꽃은 감상할 수 있게 한다.

● 구절초, 분홍구절초

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botum)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을아생초로 조경용으로도 매우 많이 쓰여왔고 현재 까지도 널리 쓰이는 품종이다. 근경으로 번식하며 9-11월에 꽃을 피우며 꽃을 줄에 달기도 하며 또한 줄기와 잎을 말려 약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종류도 다양하여 배두 산지역의 고산지역에 서식하는 바위구절초를 비롯하여 한라구절초, 서울구절초, 낙동구절초 등이 있다. 우리꽃에서 분리가발한 분홍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botum 'Bunhong')는 일반 구절초에 비해 화기가 빨라 8월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하여 일반 구절초와 혼식할 때 오히려 꽃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구절초가 잘 자라지 않고 오래되면 여름에 잘 죽어버리는 단점이 있는 반면 분홍구절초는 줄기가 짧고 키가 적당하여 쓰러짐이 없고 질러짐이 없는 장점이 있다. 분홍색의 꽃은 청명한 가을의 하늘과 매우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가을꽃이다.

● 개랑암국

꽃이 크고 화색이 다양한 개랑암국(Chrysanthemum indicum 'Bridal Robe')은 '우리꽃'에서 3년전부터 출시하여 새로운 가을꽃으로 각광받고있는 품종이다. 시라에도 강해 늦가을까지 화려한 꽃을 감상할 수 있는데 화기가 길어 가을뿐만 아니라 초여름인 6-7월에도 가을 개랑암국

의 약60%정도 개화하여 여름에도 국화꽃을 감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1차개화가 지난 뒤 8월초 정도에 적당한 크기로 순자르기를 해주면 앞트는 크기로 9월부터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 산국, 감국

산국(Chrysanthemum boreale)은 산지에서 흔히 자라는 들국화의 한종류로서 10-11월에 노란색의 꽃을 피우며 꽃은 진정, 해독 등의 효과가 있으며 키는 80-90cm정도 자란다. 감국(Chrysanthemum indicum)은 산국과 유사하나 꽃이 더 커서 꽃지름이 약2.5cm정도 되며 황색이라고도 한다. 꽃에 진한 향기가 있으며 꽃을 말려서 술에 넣어 마시기도 하고 한방에서는 감기, 폐렴, 두통, 위염 등의 치료에 약재로 사용한다.

● 사스타데이치

5-6월경 길가, 고속도로변 등을 지나다보면 하얀꽃이 무리지어 하늘하늘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스타데이치(Chrysanthemum maximum)이다. 생육이 강건하고 하얀색 꽃줄기는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아름답고 시원함을 느끼게 해준다. 사실 초장이나

꽃의 크기, 화형에 따라 품종도 매우 다양하지만 현재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유묘되어지고 있다. 요즘으로 식재하기도 하고 종자를 직접 직파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꽃에서 있는 일의 노란색 무늬가 있는 무늬사스타데이치(Chrysanthemum maximum 'Golden Sparkle')를 분리에내어 계속 육성, 증식하고 있다.

● 감국 골든볼

지명으로 알려진 감국으로 꽃이 다화성으로 10월에 꽃이 피기 시작하여 11월까지 꽃이 지속되는데 꽃잔디가 봄에 대표적인 꽃방식을 이루는 지피식물이라면 가을에는 감국 골든볼(Chrysanthemum indicum 'Golden Ball')이 바로 노랑꽃방식을 이루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키가 작고 꽃도 매우 알뜰하며 새로운 가을지피식물로 유망한 품종이다.

● 애변국화

애변국화(Chrysanthemum pacificum)는 일이 진화하며 가장자리 테두리가 있어 잎의 길감이 매우 뛰어나고 전체 형태도 좋아 꽃이 없는시기에도 일차면으로도 좋은 경관을 연출한다. 꽃은 노란색으로 작은꽃이 모여 주먹형으로 핀다. 일과 모두 좋아 단독으로 심어도 좋고 다른 가을꽃과 어울려심어도 좋다. 혼합식재시 또는 라가든에 가을의 포인트식물로도 이용해도 좋다.

옥상, 암석가든용 식물 연재 - ⑧

은회색의 뛰어난 지피력 “은쑥”

일반적으로 속하면 연상되는것이 암초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은쑥(Artemisia stelleriana 'Silver Brocade')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잎의 은색이 돋보이는 고급품종이다. 잎이 전체적으로 은색을 띄어 한눈에 봐도 잎의 질감이 매우 뛰어나고 햇살을 받으면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 물과 함께 필요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꽃을 지는 식물들이 은쑥을 내면 서 주위의 꽃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준다. 땅으로 갈리면서 지리다가 6월경도에 잎이 위로 주대가 되면서 노란색 꽃이 피는데 꽃이 피었다나실정도로 잘보이지 않

고 볼품이 없어 이때 커팅을 해주어야 오히려 좋다. 그리고 나중에 너무 열로 뻗어나가면 적당하게 순을 잘라주어 모양을 아담하게 유지하는 것이 경관상 보기가 좋다. 잎의 질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반 혼합식재 등에도 암초식물로 이용해도 좋고 암석가든에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소재이다. 이외에도 잎이 실감이 가느라단 실은쑥(Artemisia schmidtiana 'Nana')이 있는데 이 또한 잎의 질감이 은쑥과는 또다른 느낌을 주는데 마치 실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암석가든에 알맞은 소재이다.



• 실은쑥



• 은쑥

수중,수변식물의 올바른 이해 연재 - ⑩

칼같은 잎과 보라색 시원한 물결

“꽃창포”



• 줄무늬노랑창포



• 무늬창포



• 꽃창포 리조이스



• 흰창포

나 꽃이 더크고 색이 진하며
꽃잎은 꽃잎에 흰색과 노란색
이 섞인 약간의 지저분한 무늬
가 있는 반면에 꽃창포는 깔끔
하게 허모양의 노랑색무늬가
있다. 꽃이 무리지어 만개하면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해준
다.

주로 전국 각지의 산야지 초
원 및 산지의 습지에 자생하며
칼과 같은 잎을 가지고 있어
꽃이 없더라도 잎만으로도 관
상 가치가 있다. 보통 키는 50-
60cm정도 자라는데 토양의 환
경에 따라 1m정도까지 자라기
도 한다. 생태하천변등지에 군
락으로 식재하거나 정원의 소
연못 등지에 다른 수변, 수중
식물과 어울려 심으면 좋다.

번식은 분주를 하거나 종자를 파종하는데 종자파종시 그
냥 뿌리게 되면 발아하는데 오래 걸리므로 하루정도 물에
담갔다가 약 2주간 냉장보관
하여 냉처리를 하게 되면 발
아시간을 앞당길수 있고 발
아세를 좋게 할 수 있다.
노랑꽃이 피는 것을 노랑창
포 (Iris pseudacorus)라고
하는데 색력이 더 왕성하며
일반적으로 꽃창포가 물속에
심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
고있는 경우가 있는데 노랑
꽃창포는 물속 20cm까지는
가능하나 꽃창포는 수중식물

이 아니라 물가에 심는 수변식물이다.
잎의 무늬가 있는 무늬꽃창포(Iris ensata 'Variegata')는 햇
볕이 잘드는 지역부터 반그늘지역까지 생육하며 크림색
의 화이트와 그린의 줄무늬가 수직으로 넓은잎에 시원하
게 들어가 있다. 꽃은 보라색으로 피며 일반 정원이나 수
변가를 맡게 해준다. 이외에도 흰꽃을 피우는 흰꽃창포
등 몇가지 고급품종이 존재한다.



Small Garden Project-⑧

공간의 제약이 없는 “컨테이너 미니연못의 연출”



연못은 공간이 제한적이고, 육상정원, 베란다 또는
온실 등에서는 땅의 굴착이 불가능하므로 만들
수 없었지만 멋진 수변, 수생식물을 어디서나 기
르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만 용도로 쓰이면 여러 가지 용기를 재 활용하여 물을
가득고 미니 연못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욕조, 싱크대, 나무통, 큰 바가지, 화분 등을
개조하면 되는데 용기의 노면에 따라 식재에 변화를 주면
나만의 연못을 연출할 수 있다.

물이 새는 용기라도 방수처리를 하면 되니 기존 정원의

스타일에 따라 용기를 고른후 안쪽에 방수처리와 배수를
위한 구멍 처리를 한다. 심리론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끝
낼 수 있다. 미니연못을 겨울에도 노지에 둘 생각이면 겨
울철 영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미니연못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그늘지거나 밝은 밝은 곳이지만 하루
중 잠깐이라도 그늘은 필요하니 유념해야 한다. 왜냐하면
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 하강하는 것과 물의 지나친
증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니연못은 말 그
대로 규모가 작아 물의 양도 비례적으로 일반연못에 비해
작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면 변동량이 매우 커진다. 겨
울철에는 보직천 등으로 잡아 영하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
게 하거나 장소를 옮겨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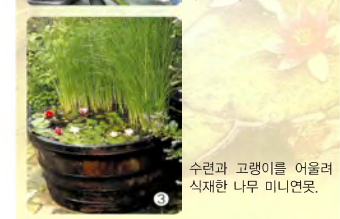
식물의 식재는 어떠한 수생, 수변식물도 매치할 수 있으
므로 자유롭다. 열대성 식물은 온실이나 실내에 두면 되
고 침수식물도 수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 용기를 여러
개 모아하면 장식적 효과도 커지고 대기 중 습도가 높아
져 수생식물에 좋으니 관용에 보자.

용기의 선택

기존의 나무통이나 물곽을 개조하여 아생화들로 자연스
럽게 연출할 수 있다.



물이나 테라코타용기는 전형적인 느낌을 준다. 정형적 또
는 지중해 느낌을 연출한다.
사기용기 또는 유리용기는 금속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현대적인 스타일을 연출한다.



•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싱크대로 미니연못을
연출하였다. 작은 펌프를
싱크대에 설치하여 수도
꼭지로 물이 올라오도록
장치하였다.

• 크고 용기나는 화분에
큰 물옥잠과 식물로
강한 인상을 만든다.

• 수련과 고랭이를 어울려
식재한 나무 미니연못.

화분과 사초와 식물로 대표되는

Grass Scape 연재 - ③

밝고 강한 황금색무늬종 “무늬여우꼬리그라스”



무늬여우꼬리그라스(Allegurus pratensis 'Variegata')
는 황금색무늬가 좋은 무늬종그라스로 3년전부터
국내에서 출시되어 대표적인 그라스류로 활발하
게 적용되어지고 있다. 키는 약90cm정도 자라며 대부분
밝은 녹색잎에 노란색 수직의 줄무늬가 있거나 또는 간혹
모두 노란색으로 되어져있다. 무늬여우꼬리그라스는
foxtail grass 무늬종이라고 불리며 자기도 하여 우리이름으
로 무늬여우꼬리그라스라고 명명하였는데 아마도 이종종
은 5-6월에 꽃을 피우는데 이때 꽃모양이 여우꼬리와 유
사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 싶다.

이름 처음에는 가독이치런 꽃이 서다가 후에는 갈무
분기 이치형태로 늘어지기도 한다. 잎차례의 무늬가 좋아
매우 밝고 강한 종은 색상을 가지고 있어 조경현장에 다



안하게 적용할 수 있다. 조경공간에 일부구간을 군식하여
도 좋고 경계를 주기 위해 라인식물로 열식하여도 좋다.
여타 무늬종 식물과 마찬가지로 혼합식재시 또는 타기들
에 포인식물로 이용해도 좋다. 그리고 매우 시원한 느
낌을 주므로 볼과 잘어울려 폰드주변에 다른식물과 어울
려 심어도 좋다. 그라스원 조성시에도 앞쪽에 해변무늬
사초, 홍미, 골드밴드 등과 적절하게 배치하면 좋은 경관
을 연출한다. 특히 홍미와 잘 배치하면 붉은잎과 노란색
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색다른 느낌을 준다. 그라스종
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cm내외의 품종들은 품종에 따
라서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좋지만 다른 그라스류와 잘 배
치하면 경관적으로 효과를 배가시킬수 있다. 덧붙여 피는
꽃은 나뭇잎에 귀엽게 용기종기모여 볼때만엔 하늘거릴
때는 마치 여우꼬리가 춤추는듯한 느낌을 준다.

특별한 관리의 필요없을 정도로 생육이 강건하고 번식
력이 뛰어난데 볼
품이 잘 되고 서
늘한 날씨를 좋아
해 간혹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잎이
갈변되면서 지저
분하게 되기도 하
는데 이 때 잎을
약 1/2이상 컷팅
해주면 다시 좋은
새순을 기대할 수
있다. 갈변된 볼
날씨가 비교적 서
늘한 곳에 식재되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연재 - ⑧

잎의 질감이 뛰어난 대형아주가 “왕아주가”



아주는 꽃과 잎이 풍요로우며 지피력도 뛰어난
음지용 조경용소재로 유용하게 이용되어지고 있
는 품종이다. 현재는 일반종 아주가 위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경관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더욱더
좋은 품종이 다양하여 우리네에서든 에기아주와 레인
보우아주가를 소개함바가 있다. 이번에는 아주가품종으로
볼품이 큰 왕아주가(Allegurus pratensis 'Cuttin's Giant')를 소개
하고자 한다.

이름에서도 느낄수 있듯이 잎이 매우 크고 보라색의 꽃
도 대형으로 식물전체적으로 볼품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잎 전체에 광택이 있어 잎의 질감이 매우
뛰어나고 광감함을 느낄수 있다. 일반 아주가와 마찬가지로
터너를 뺀이 증식하는데 품체가 크기 때문에 지피력
또한 다른 아주가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음양지를 가리지 않고 잘자라며 나무아래 등의 음지에
군식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에기아주, 레인보우아주가와 레인
보우아주가를 소개함바가 있다. 이번에는 아주가품종으로
볼품이 큰 왕아주가(Allegurus pratensis 'Cuttin's Giant')를 소개
하고자 한다.

번식은 런터를 이용하여 직
삼하거나 근삼을 이용하면
된다. 생육이 강건하여 병해

충에도 강해 특별한 관리는 필요없지만 너무 쉼이 있는
경우 경마를 천주하여 일부 속아주거나 살균제를 살포
해주면 더욱 좋다.
작년에 한 발 앞서 출시된 에기아주가는 선종적인 인기
속에 올 볼 일찌기 판매가 완료되었을 정도이다. 그만큼
음지소재의 반공함속에서 새로운 소재는 조경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이 새롭게 출시되는 왕아주가
또한 음지의 새로운 소재로 각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되
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해본다.



• 왕아주가 개회 모습

• 왕 : 왕아주가

• 우 : 일반아주가

장마로 인한 피해지역

“계절형 종자로 복구 완료한다”



우리는 매년 항상 장마로 인해 곳곳에서 수많은 피해를 보고있다. 그리고 이로인해 각종 복구사업이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있다. 장마기간에 식재지가 빈번히 침수되어 항상 피해가 잦은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식재지 침수로 인한 피해는 단시간에 복구, 경관을 재연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방법중 계절형 종자를 이용하는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침수지의 식재상황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다를 수 있는데 물 속에 2~3일 잠겨 지상부가 고사하였다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윈추리, 별개미취, 개미취, 비비추, 백문동, 물단풍, 후투스, 붓꽃류 등의 속근초가 식재되어진 곳이라면 조금 있으면 다시 새순이 나와 산흔을 없애고 다시 푸르게 변화하는데 큰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토사가 많이 떨어져 회복세가 많이 늦어질경우나 또는 등치에서 가을형종 등이 있다면 개화가 빠른 1년초 계절형종자를 사용하는것이 좋다. 물론 매년 1년초 종자로 경관을 연출했던곳도 마찬가지일것이다.

그 종류로는 매밀을 비롯하여 파종후 45~60일 뒤에 개화하며 꽃이 대형종인 코스모스 빅스타사계, 파종후 60일 뒤에 개화하는 조생종 애성해바라기, 매우 화려하고 생육이 좋은 끈끈이대나물, 꽃이 매우 아름답고 어디에서도 잘 자라는 수레국화, 이른봄 하얀꽃무리가 좋은 안개초, 꽃이 크고 화려하며 장기개화형의 재배위문 식물인 꽃담배 등인데 이들은 짧은 기간내에 경관의 재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들 식물을 파종하여 경관을 연출해도 팬아력이 뛰어난 기존식물의 악년생육에는 큰문제가 없다. 다만 어떤 식물이 되었건 속근초의 몇몇 유가 파종은 피한다. 악년봄에 개화하는 유채, 혹은 이와 비슷한 식물의 경우 이른봄 이들이 개화후 열매가 맺기전에 제거하여 충실하게 본 식

물이 자랄 수 있게한다. 코스모스 빅스타사계, 조생종 애성해바라기, 끈끈이대나물, 안개초, 꽃담배, 춘자국 등 1년생 계절형종자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시간내에 장마로 인한 피해지역의 경관복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 종자가격표(설계단가/kg)

품 목	설계단가	품 목	설계단가	품 목	설계단가	품 목	설계단가
가시오가피	200,000	뽕의대리	110,000	바위구절초	450,000	꼭재비비추	2,500
각시취	120,000	끈끈이대나물	90,000	배롱나무	140,000	쨍레	70,000
길대	60,000	나팔꽃	27,000	백담	70,000	참두릅나무	120,000
갯	35,000	난쟁이패랭이	160,000	백일홍	120,000	참죽나무	90,000
개미취	120,000	낭아초	18,000	버베나	340,000	창포	180,000
개위평	80,000	노랑꽃참모	120,000	별개미취	240,000	채송화	320,000
개양귀비	340,000	노루오줌	200,000	별노랑이	35,000	천연인	80,000
개양귀비(red)	360,000	달맞이	14,000	범부채	100,000	천일홍	120,000
갯방울	90,000	담쟁이(3엽)	90,000	복자기	60,000	채꽃	140,000
고로쇠	70,000	담쟁이(5엽)	90,000	물선화	36,000	춘자국	70,000
공작초	70,000	당단풍	90,000	무용	120,000	충골	90,000
괴꽃	65,000	당초팝	85,000	부처꽃	110,000	코스모스	18,000
구절초	320,000	더덕	120,000	분꽃	45,000	크로바(레드)	17,000
공궁이	90,000	도라지	40,000	꽃나무	90,000	크로바(화이트)	17,000
금강애기귀린초	350,000	돌마타리	120,000	붉은매밀	180,000	큰꽃마리	120,000
금계국	90,000	등	70,000	꽃골	90,000	큰쟁의비름	180,000
금불초	120,000	떡지꽃	120,000	비수리	15,000	큰랜무	60,000
금영화	180,000	땅비비추	110,000	사루비아	120,000	큰튤립	150,000
금진화	90,000	왕비비추	50,000	산국	70,000	타래꽃	65,000
기린초	170,000	루드베기아	70,000	산비탈리아	180,000	패랭이(혼합)	90,000
긴산코리올	180,000	마가목	270,000	색동호박	90,000	페츨니아	350,000
꼬리조팝	110,000	마티리	65,000	사스타데이지	90,000	물집초	90,000
꽃담배	120,000	만수국	70,000	서양매발톱	400,000	한국잔디	70,000
꽃무	85,000	만주측송	45,000	서양튤립	350,000	한련화	55,000
꽃복깃	70,000	맨드라미(주막)	70,000	수레국화	36,000	해당화	120,000
꽃아마	40,000	맨드라미(초물)	65,000	수레동자	200,000	해바라기	45,000
꽃아마(속근)	90,000	매밀	14,000	수세미	36,000	해송	48,000
꽃창포	180,000	물레나물	120,000	수크령	70,000	향부	95,000
꽃향유	90,000	물오리	60,000	속국천인국	100,000	황금	90,000
골풀	120,000	민들레	70,000	솔패랭이	160,000	황화코스모스	90,000

* 위 가격은 설계단가 이므로 납품단가를 원하실경우 연락주시면 전적식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화색이 아름다운 장기개화형 톱풀시리즈



1. 화기가 길고 생육이 강하다.
2. 화색이 아름다워 고급정원용, 공원, 골프장에 안성맞춤
3. 다양한 화색의 '파스텔', 빨강색 화려함의 '비단', 순백의 아름다운 '화이트캔디' 등 각종품종의 특성에 맞게 적용이 가능하다.
4. 각 품종간에 혼식하거나 단독군식해도 좋다.

잎의 절간이 짧고 느낌이 좋은 음지의 새로운 대안 에버그린아이비



1. 잎이 아주 조밀하게 지라며 광택이 좋다.
2. 수평과 피복을 비롯하여 실내조경에도 유리

잎이 조밀하고 포기모양이 좋은 알키밀라



1. 화단용, 락가든용, 수변용 어디에 사용해도 좋다.
2. 스프레이형의 노란꽃은 주변을 시원하게 해주고 철화형으로도 안성맞춤

고급조경의 필수소재 가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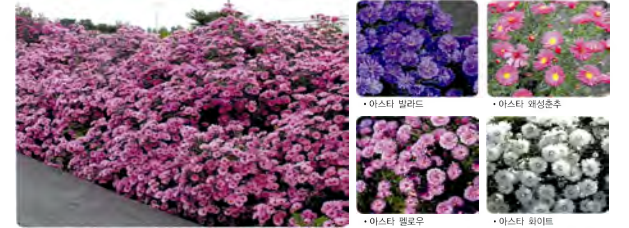
1. 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
2. 아름다운 꽃은 날고 있는 나비를 연상
3. 생육이 강하고 화색이 다양하다.
4. 우리의 정서에도 알맞아 도로변을 비롯하여 골프장, 공원, 식물원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키가 작은 천상의 아름다운 속근애성천인국



1. 꽃이 화려하고 개화기가 길다
2. 화색이 아름답고 강렬해 화상의 포인트

다양한 화색의 가을연출 속근아스타



1. 생육이 빠르고 다화성의 꽃은 매우 아름답다.
2. 화색이 다양하며 서로 어울려 식재해도 좋다.
3. 고성품은 혼식시 빛물식물로 이용하거나 도로변등에 군식하면 좋다.
4. 애성품은 혼식시 가을꽃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리꽃의 다양한 조경용숙근초와 이를 이용한 고급조경식재기법”



2006 대한민국 환경조경박람회(LANDEX 2006)가 지난 6월에 YTN 주최하에 서울월드컵경기장 평화의공원 야외전시장에서 10일간(6월2일~6월11일) 열렸다. 조경사공, 조경식재물, 조경식재자, 공공기관 등 약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각업체마다 부스에 제품 및 시설물 등을 전시하여 성황리에 끝났다. ‘우리꽃’은 외국전시회는 참여할적이 있었지만 국내에는 이번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전시회이다. 이번 LANDEX 2006에서 ‘우리꽃’은 다양한 조경용숙근초와 이를 이용한 고급조경식재기법을 선보여 큰 각광을 받았다.

전시장에서 바로 식물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2달전부터 100여종의 용숙근초를 문화부에 심어 특별관리하였다. 행사 2달전부터 행사장입구의 부스 4개(약12평)를 연결하여 배치하기 시작했다. 중앙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소로길을 내고 그위에 띠가든에 환호했던 그라인더를 깔았다. 안쪽으로는 소연못과 ARI가든을 이어서 조성하였다. 바깥쪽으로는 혼합식재가든을 연출하였다. 소연못은 바닥수자재인 라이너를 이용하여 시공하였다. 그 위에 황토마시인 ‘벌집’을 깔아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하였다.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물은 흐루하여 물나무사이로 들어 자연의 그스리대로 흐르게 하였고 물속에는 무늬글리세리아, 무늬아네조, 속새, 미니원 등을 심어 한가롭게 노닐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주변으로는 다양한 호스타류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식물들로 연출하였다. 작은 연못이기에 식물의 적용은 한계가 있지만 면적이 넓어지면 보다 큰 형태의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행사장을 방문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것이 이 소연못이었는데 조경인 뿐만아니라 일반관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도심속의 소연못에서도 아름다움과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되었던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연못에 이어서 미니 ARI가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연출하였다. 작은 면적에서도 물과 식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리게 조성하였고 소연못과 미니 ARI가든이 마치 1세트가 되어 도심속의 옥상조경 등에 적용하면 매우 이식적인 패턴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좌측으로는 약 70여종의 준비된 식물들 화분그대로 배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조경시에는 작은 포트 등을 심어 식재후 약2-3개월이 지난 뒤에 재도심을 갖추게 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완성함을 보여주기위해서 재품을 갈출 수 있도록 각 소재들을 문화부에 심어 행사장에서 완성된 형태로 연출하였다. 다양한 소재를 기반으로 현재 아름답게 꽃이 피어있던 들꽃 비단, 도동꽃 천트빈, 가우라, 금계국 왜성사계, 속근도랑담맞이 등을 중심으로 무늬와 질감이 좋은 호스타류와 무늬엽무그라스, 무늬글리세리아, 무늬세그라스 등 그라스류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아름다움을 연출하였다. 관망객 모두 이 구름상으로 던지는 말들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다양한 한 소재가 있었구나.’라는 점과 이런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아름답게 배치할 수 있구나’라는 점이었다.

우리꽃에서는 이번 LANDEX 2006을 통해서 많은 조경인들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고루 갖춘 다양한 조경용숙근초를 현장에서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꽃에서 자체개발하여 특허등록중인 삼육잔디패랭이, 눈꽃은플레 등과 완급안발개미취, 무늬노랑꽃향초 등 개발중인 품목들을 소개하여 조성전진국의 좋은 소재들을 발굴하는 것뿐만아니라 자체적으로 좋은 소재를 꾸준히 개발하여 국내뿐만아니라 수출을 외국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혼합식재, ARI가든, 소연못 등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완급안 업그레이드된 조경기법을 선보임으로써 쉽게 느껴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전 사함과 아울러 눈높이를 한단계 높여드렸다고 감히 자부해 본다. 그 외에도 우리꽃에서 판매중인 방수 자재 EPDM라이너, 황토마

사 리필, 그라인더 등 조경자재 뿐만아니라 법면녹화의 한계타오로 자리잡은 우리법면혼합종시리인 우리법면 3.4호에도 큰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LANDEX 2006을 계기로 우리꽃은 앞으로는 전시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조경용숙근초와 조경기법 등을 계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당장 올 8월에 서울국제원예자재 박람회와 10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LANDEX 2006 우리꽃 행사장에 찾아 주신 많은 분들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조경에서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생소한데 이번 우리꽃 부스를 다녀간 분들이라면 조경에도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도 이해가 될 만큼 인상적인 조경의 패턴을 보여주었다.



백진욱
가IC.C. 코스관리부 본부장
영남지역 그린키퍼 회장

경남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는 가야컨트리클럽은 54홀(회원제45홀, 퍼블릭9홀)로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꽃’의 다양한 신품종을 도입하여 우리법면혼합종, 혼합식재 등을 이용하여 일부 주요홀에 걸쳐 고객들의 주요 통상선에 다양하게 조성하였다. 골프코스내 경기가 시작되는 홀부터 마지막홀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꽃들을 함께 한으로써 찾아오는 내장객들에게 시각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주고 있다.

먼저 골프장 정문입구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볼거리를 위해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 ‘우리꽃’의 혼합종인 우리법면3.4호를 파종하여 골프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제공과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계속해서 감상할 수 있게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외에도 클럽하우스 주변, 스타트하우스 주변 그리고 골프코스를 증설하면서 생기는 법면에 녹화를 위해서 양 잔디파종을 지양하고 ‘우리꽃’의 혼합종인 우리법면혼합종을 씨드스프레이어로 녹화와 더불어 연중 꽃을 감상할 수 있게 조성했다. 화려한 꽃양귀비를 비롯하여 시기별로 다양한 화색의 꽃이 번갈아 피면서 꽃물결을 형성하고 있다.

카드도주변 통상선에는 여세를 식재하여 가을이면 억새물결속으로 골프카가 달리고 하얀색 억새가 태양에 비쳐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주요 포인트가 되는 지역에는 다양한 신품종을 이용하여 혼합식재를 하였는데 모나다, 속근코스모스, 잔디패랭이, 패랭이아스타, 가우라, 개량꽃잔디, 개량후룩스 등 약 50여종을 일부 주요홀에 걸쳐 골고루 혼합식재하여 피고지고 개화시기가 계속 연결되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 식재후 재초관리, 시비관리 등에 노력을 기울여 주면 약 2개월후부터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재도심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일반인 지난 지금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완벽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구간을 정하여 가우라, 스텔라원주리 등 장기간화종을 열식하여 시원한 느낌을 주고 동시에 시기적으로 컷팅 등 조금만 관리해주면 계속해서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가 있다. 또한 봄에 철쭉이 지고난뒤에는 꽃이 없어 허전함을 느끼게 한다. ‘우리꽃’에서 철쭉사이로 백합을 식재하여 봄에 꽃이 지고난뒤 여름에 철쭉사이로 백합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재만해와 식재하였는데 철쭉사이로 화려한 백합이 꽃을 내밀자 이 색다른 경관이 내장객들에게 큰호응을 얻었다.

‘우리꽃’에서 많은 골프장에 혼합식재, 라카는 등을 조성하여 큰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가야컨트리클럽도 이제는 ‘우리꽃’의 고급숙근초 등을 이용하여 연중 각양각색의 아름다운꽃들로 어우러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신품종양생와 등을 이용해서 골프장 전체가 꽃이 만발하는 곳으로 조성하여 내장객들에게 골프 뿐만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가야컨트리클럽으로 만들 계획이며 영남권에서는 최고의 친환경경적이면서 아름다운 골프장임을 자부해본다.

3. 철쭉사이로 백합이 개화되어 있는 모습

4. 군식되어 있는 스텔라원주리

5. 폰드주변을 따라 가우라가 시원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6. 우리법면4호 개화모습

社 告

제3회 우리조경인상

우리꽃은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코자 적년에 이어 올해 제3회 우리조경인상을 시행합니다. 우리꽃에서 보급한 우량의 종자와 모종을 현장에 잘 적용하여 아름답고 한 차원 높은 경관연출을 가능하게 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대상에는 중국의 조경현장, 식물원, 백두산, 우리꽃 중국현지법인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액 여러분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추천접수 : 8월 15일
•심 사 : 8월 20일
•발 표 : 개별통보후 우리넷 9,10월호 게재
•시 상 : 8월말~9월 초



1. 2. 모나다, 개량후룩스, 속근코스모스 등이 어우러져 꽃이 피고 있는 혼합식재화단
3. 철쭉사이로 백합이 개화되어 있는 모습
4. 군식되어 있는 스텔라원주리
5. 폰드주변을 따라 가우라가 시원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6. 우리법면4호 개화모습

우리꽃에서 2006년 하반기 사원을 모집합니다.

젊고 패기 있는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 우리꽃 (본사 근무)

모집부문	모집인원	학 력	경 력
마케팅	1명	전문대 졸업	2년 이상
농자재	1명	전문대 졸업	3년 이상

▶ 포천뉴식물원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근무)

모집부문	모집인원	학 력	경 력
운영관리팀	1명	전문대 졸업	신입 무관

▶ 담당자 정보

담당 : 서준혁
담당연락처 : 02) 3412-1281
담당이메일 : uriseeds@hanmail.net

취미로 기르는 야생화 - ⑧

우리민족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패랭이”

석죽과의 패랭이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야생화로 꽃의 모양이 조선시대 민초들이 쓰던 모자인 ‘패랭이’를 닮아서 패랭이꽃이라 부르며 문학작품에서도 도시민을 패랭이꽃에 비유하곤 했다. 들에서 씨를 따우는 대나무란 뜻의 석죽 또는 산죽이라 불릴 정도로 생장력이 강한 식물이다. 바위틈과 같이 메마르고 척박한곳에서도 잘 자라 아름다운꽃을 피워 우리민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온 꽃이다.



• 심목진디패랭이



• 술패랭이

보통 꽃은 6~8월경에 피고 진분홍색을 띤다. 패랭이꽃은 한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많은 꽃들이 피어나기 때문에 관상가치가 높은 야생화로 패랭이꽃유도 종류가 다양하여 술패랭이, 구름패랭이, 난쟁이패랭이 등이 있는데 모두 강건하고 재배가 쉽다. 일반적으로 척박지나 양치바른곳에서 잘 자란다.

가장에서도 쉽게 키를수 있는 야생화로 번식은 파종하거나 삽목을 하면되며 분심기는 봄에 하는데 얇고 넓은 화분에 식재하는것이 좋고 배양토는 마사토나 부엽을 함께 사용하는것이 생육에

좋으며 분갈이는 2년에 한번씩 봄 또는 가을에 해주는데 좋다. 새로 분갈이할때는 목은 그루터기와 덩뿌리를 짧게 다듬어내주어야 한다. 노지에 식재했을때에는 키가 너무 커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5월초순경 적당한 크기로 컷팅을 해주면 나중에 관상적인 가치를 높여게 된다.

패랭이는 자생종이외에도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하는데 잔디패랭이, 왕상록패랭이, 상록잔디패랭이 등도 가정에서 기르는데 좋은 소재이다. 이들 품종은 대부분 종자를 파종해서는 원래의 품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삽목을 해서 번식해야 된다. 이들은 대부분 키가 작고 꽃도 오래가기 때문에 분경용으로도 매우 적합하다.

서양에서는 패랭이꽃을 셀러드를 만들기도 하며 우리한방에서는 식물체전체를 비노기계통의 치료 및 열을 내리거나 열압을 낮추는데 이용한다. 패랭이꽃의 씨앗을 한방에서는 구맥자라한다. 이도 제나 통경제로 쓰기도 한다.



1. 왕상록패랭이 모주에서 삽수자르기
2. 삽수
3. 삽수를 트레이에 삽목
4. 공경육묘되어진 트레이묘
5. 뿌리돌림이 완성된 트레이묘
6. 포트에 식재

토종허브를 찾아서- 연재 ⑧

예로부터 널리 쓰여온 덩굴식물

“취”

강원랜드 조경팀장 이 원 한



취 (Pueraria thunbergiana)는 빨리 자라는 목본성 덩굴로 다소 털이 나기도 하며 한계절에 길이가 18m까지 자라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널리 쓰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줄기로는 밭종이나 생육을 만들었으며 꽃과 뿌리는 약으로 뿌리는 구황식물로 또 잎은 가족의 사료나 퇴비로 널리 써왔다.

한방에서는 여름에 뿌리와 꽃을 채취해서 약으로 쓰는데 꽃 말린 것을 갈화(葛花), 뿌리 말린 것을 갈근(葛根)이라고 한다.

갈화는 장풍(腸風)에, 짧게 썰어 말린 갈근은 치열·산열·발한·해열에 쓰인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취뿌리의 생즙을 마시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는 가을이나 봄에 뿌리를 캐서 물로 씻어 그늘에 말렸다가 찜계 썰어서 쓴다.

취는 70%종이 물로 되어 있으나 그 밖에 당분, 섬유질, 단백질, 철분, 인,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다이드젠인, 다이드진 등 열을 내리고 머리 아픈 것을 낮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성분들이 들어있

다. 취는 땅속에서 물을 빨아들여 굵은 몸통 속에 저장한다. 그래서 사람의 몸 속에서도 설사를 막게 하는 작용을 한다. 땅으로 물기를 내보내고 열을 내려 열병으로 인한 병을 낮게 하는 것이다.

취는 이것 한가지만으로도 당뇨병, 부종, 설사, 황달, 설측, 고혈압, 두통, 협심증 등에 좋은 효험을 보일 때가 많다.

취뿌리는 성질이 차가우므로 몸이 찬 사람, 골 소음이나 태음체질인 사람이 오래 복용하면 좋지 않다. 붉은 소양체질인 사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자 보약이다.

갈화차(葛花茶=취꽃차)

갈화는 취냉철의 꽃이다.

취꽃은 7~8월에 등나무 꽃처럼 총상꽃차례로 피는데, 꽃이 타래 꽃송이 중간중간까지 피었을 때 따서 말리는 것이 좋다. 취꽃이 말들에서부터 피기 시작하여 중간까지 피었다면 끝부분은 아직 꽃망울이 터지기 전이고 맨 먼저 핀 꽃이 지기 전일 것이다.

취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채취할수 있다. 취뿌리는 캐기 힘들지만 취꽃은 아이들도 손쉽게 딸 수 있다.

단 한가지 주의할 점은 토로나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청정지역의 취꽃을 따야 하는데 참이나 가위로 꽃자루 밑동을 자른다.

갈화를 주재료로 하여 말린 국화나 복분자 등에서 한 가지씩 함께 넣고 달여 마시면 또 다른 맛의 갈화차가 된다.

갈화로 만든 갈화 해성탕은 술을 해독하고 잠들이 있는 비장을 깨워 각성 시킴으로 식욕을 증진 시키고 고혈압을 다스리며 장풍(腸風)에 특효적이다.

특히 갈화는 우리 토종 허브식물을 대표하며 겨울에 달여서 온 가족이 마시면 감기에방이 되고 주위를 덜 단다고 한다.



• 갈화차 만드는 법

1. 채집한 취꽃은 시들기 전에 생수로 찌는데 손질을 잘 하면 구터여 씻을 필요는 없다.
2. 물이 끓을때 강크레를 높게 하여 꽃을 엮고 3~4분 쪄 뒤에 뚜껑을 열어 김을 빼고 그늘에서 말린다.
3. 마른 취꽃은 부처지기 않게 잘 갈무리한다.
4. 차를 달일 때는 되들이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취꽃 20g을 넣고 5분쯤 더 달이면 담홍색의 갈화차가 된다.
5. 갈화차는 취맛이 나는 듯 마는 듯 은은하고 톡톡히가 그득하다.
6. 진하게 달여 마셔도 좋고 은은하게 달여 두고 마시듯이 마셔도 실증치 나지 않는다.

지상중계

이천 연구소 1만3천평의 생산·연구기지



• 신동성 일조시 시장과 수형원 방문



매미가 목청을 가다듬고 울어대는 노래소리에 여름의 꽃들 또한 소리없이 얼굴을 내미는 여름의 아침...

지금 이천연구소는 꽃이 만발...

4개월중 어느 계절에 많은 종류들이 꽃을 피을까? 언뜻 생각하면 봄꽃 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름에 많은 종류들이 꽃을 피운다. 여름중에 특히 6~7월에 제일 많이 피우는 시기이다. 이천연구소에서도 전지포를 비롯하여 모주밭에서는 지금 많은 꽃들이 개망후박스를 비롯하여 리아트리스, 다알리아, 나리류, 스타티스, 애성금계국, 가우라, 속근코스모스 등 꽃천지를 이루고 있다.

지금 이천연구소는 신입사원 교육이 한창...

3명의 신입직원인 정규과정인 신입사원 교육을 위해 연구소에 입소하였다. 일정기간(3개월)의 연구소에서의 현장교육을 거쳐 기본실력을 배양한뒤 각 직원들을 평가하여 '우리꽃', '부식물' 등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것이며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을 믿는다.

신입직원들이 매일같이 흘리는 땀이 우리꽃의 새로운 열매로서 탐관급의 수확도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 이천연구소는 다양한 작업으로...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역시 풀과와 전쟁은 끝날줄 모르고 봄철에는 3~4주에 한번 정면적인 병충해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지만 고온다습한 시기가 다가오면 2주에 한번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미리 예방을 하고 있으며 13,000여평의 이천연구소 주변 환경정화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연구소내 연못에 다리를 제작하고 있으며 사무실뒤 등나무 밑에 원터를 마련하여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한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출고작업은 연일 계속되어지고 8월에 있을 행사(서울국제 원예박람회)가 있어 다시한번 조경업체를 놀리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이천연구소는 신품종 개발이...

이천연구소는 지금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중에 하나로 새로운 품종개발을 위해 품종들간의 교잡작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각 품종들의 화기 등 특성 등을 세밀하게 체크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50여종이 넘게 혼합되어있는 유색원추리를 품종별로 분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연

구소내 품종개발실에서는 현재 많은 인가를 얻고있는 속근코스모스의 또다른 품종인 '오렌지' 2품종을 분리, 육성중이며 새로운 개념의 패성사스타데이지 및 많은 품종개발 및 연구에 힘쓰고 있다.

지금 이천연구소는 많은 방문객으로...

봄부터 지금까지 많은 방문객이 이천연구소를 찾아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있는 연구소내 화단과 다양한 품종들을 보기위해 다녀갔다. 어떻게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보고 싶어 찾았으신분들을 비롯하여 설계회사(삼성에버랜드, 성우엔지니어링, 비온도 등)의 담당자들이 방문하여 우리원에서만 보아왔던 다양한 품종 및 조경현장을 보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에버랜드 설계팀의 경우 이후 '우리꽃'이 시공한 춘천 C.C.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안내에 의해 전체적으로 둘러본후 매우 잘 이루어진 조경에 놀라워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꽃'이 새롭게 농장을 조성하고 있는 중국 산동성 일조시의 시장이 수형원과 방문하여 당사 박공영 대표의 직접 안내를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이천연구소의 아름다운 꽃들은 친절하게 안내를 하며 즐거운 눈짓을 보내고 있다.

社告

우리꽃 사무실 이전안내문

집어가는 녹음처럼 귀사의 사업이 더욱 더 번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꽃이 좀 더 넓은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하는 사무실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좋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쾌적하고 **정원이 함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배울이 주신 성원 덕분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꽃에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 사무실 업무개시일: 2006년 8월 1일 (화요일)

◇ 서울 사무실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율연동 196-82 (방죽2마을)
- 전화번호 : (02) 3412 - 1281~2
- 팩 스 : (02) 3412 - 1283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 지하철 3호선 수서역 6번출구 마들버스 6번 방죽1마을을 앞차차
- <버스노선>
 - 57, 2412, 4419, 4420, 1007, 1007-1, 1115-5, 5600, 6900
- <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성남방향 세곡사거리
 - 경부고속도로 판교IC에서 서울공항 세곡사거리

◇ 역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요금 후원을 기다립니다.

지정된 계좌에 구독/후원을 하시려면

농협 : 235100-56-071562
예금주 : 박공영 (우리꽃 대표 및 소식지 발행인)
전화 : (02)3412-1281~2 팩스 : (02)3412-1283

농업적 경관, 체험, 휴식이 있는 곳 “포천부식물원 ③”

“이 코너는 경관식물원을 표방하는 포천부식물원의 월별 주요 경관과 식물원 내의 이벤트 및 진행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포천 부식물원은 자연과 인간이 적당하게 조화를 이룬 미의 대상물을 창조하는 곳이다. 6월의 포천부식물원은 있지도 않은 양귀비의 아련 기운 때문이 아닌 푸른 하늘, 꽃밭, 바람 그리고 자연에 취해 몽롱한 곳이다.

양귀비는 늘씬하게 올라가면서 미끈한 곡선을 만드는 줄기, 또 수송 알을 다 드러내도록 뽕뽕 벌어진 큼직한 꽃 때문에 사진 촬영하기 좋다. 얇은 홑겹 꽃잎에는 섬세한 드레스 자락처럼 아주 살짝 주름이 잡혔다. 한껏 화려하면서도 하늘하늘 가녀린 모습이 남모름 시연을 품은 듯 아주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다. 이면에 공개된 양귀비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관상용으로 심을 만큼 미약과는 거리가 먼 안전한 꽃들이다.



• 꽃양귀비와 안개초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6월의 포천부식물원은 개양귀비와 톱날 뽕뽕의 화려한 붉은 물결이 3천여 평의 대지에 가득하다. 포천부식물원은 대지를 붉은빛으로 수놓는 양귀비꽃의 향연, ‘제1회 양귀비 레드 캐스티벌’과 함께 하는 ‘부식물원 사진공모전’을 6월 30일까지 성황리에 마쳤다. 쉽게 접근하기 힘든 양귀비 들란을 소재로 양귀비의 특징을 잘 살린 작품과 아름다운 부식물원의 다양한 풍경을 소재로 한 창작사진작품을 공모하여 심사를 마치고 오는 8월에 시상식을 앞두고 있다.



•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나라



• 영화 ‘운명적사랑’ 촬영 모습



• 나리꽃 제일 먼저 꽃을 피운 분홍나리

양귀비 레드 캐스티벌 기간 중 체험하였던 꽃부트미와 식물표본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나무공예 천연염색과 하브바주만 만들기 체험은 연간 계속되는 다른 축제에서도 만날 수 있고, 미꾸라지 이벤트에 참여했던 꼬마 친구들은 물놀이 축제 때 다시 참여 할 수 있다. 양귀비 비빔밥, 양귀비 쿠키, 양귀비 치즈김치볶음밥, 양귀비 냉국수 등 양귀비를 재료로 만든

독특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유효하다. 물론 잦은 비로 인하여 시기를 맞추지 못한 방문객들은 내년을 기약하자.

6월 축제기간중 포천부식물원은 특히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다. 5월 12일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경향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내일신문, 조선일보, 연합뉴스, 서울신문 등은 앞다투어 취재를 소개하였고, MBC 공감 특별한 세상은 양귀비를 소재로 한 세대를 음식과 식물원의 영상을 방송하기도 하였다. 그 뒤를 이어 KBS 아침뉴스에 부식물원의 영상이 2회 방영되었고, KBS2 TV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무한지대 큐’에서도 양귀비를 소재로 한 음식과 식물원의 영상을 소개하였다. 특히 지난 6월 21일 (주)와인픽처스에서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고 있는 영화 ‘(가제)운명적사랑’의 촬영은 앞으로 포천 부식물원에 일한 방문객뿐 아니라 영화촬영, 작품사진과 해당 촬영 장소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이 보여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잘 가꿔진 정원같은 포천부식물원은 또한 아이들의 천국이다. 아이들이 권히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흔히 ‘들여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은 물론 산책로와 꽃밭을 구분하는 울타리조차 없어 아이들이 꽃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다.

6월의 양귀비를 뒤로 하고 형형색색의 나라가 그 뒤를 이어 보는 이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분홍의 나라가 시작을 알리고 그 뒤를 이어 하양, 노랑의 물결이 전해지고 귀족의 자태를 뽐내듯 7월초에는 빨간색의 하늘나라가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또 다른 양귀비와 바람, 소리의 향연이 있는 포천부식물원을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 가족들과 연인들에게 적극 추천해 본다.

양귀비의 향에 취해 볼까 !!!
울긋불긋 꽃대결 차리던 동네~
한적한 여유와 체험 휴식이 있는
포천부식물원에 초대합니다.



• 양귀비 사진 공모전



• 양귀비를 재료로 만든 독특한 음식들



• 행사에 참가하여 양귀비꽃잎을 따고 있는 아이들

포천 부식물원
The View Botanic Garden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441
안 내 : 031) 534-1136
서울사무소 : 02) 3412-1281~2